

▶ '5선 최연장자' 김현덕 전주시의회 의원

지역구민 곁에서 답 찾다... 생활정치로 일군 신뢰의 역사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화려한 인연보다 묵묵한 실천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온 대표적인 생활 정치인이다.

전주시 삼천·2·3동과 효재동을 지역구로 둔 그는 이번 당선으로 5선 고지에 오르며 전주시의회 최고참 의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1956년생인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3차례 무소속으로 2차례 당선되며 정당을 뛰어넘는 개인적 신뢰와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의 힘을 입증했다.

특히 5년여만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다섯 번이나 받았다는 점은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 의원은 대선 의원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며 "항상 주민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의정활동 철학은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에 있다. 삼천동 일대와 중리동 등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농로 정비, 수해 예방, 배수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형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는 "농촌지역은 크고 작은 민원이 많다"며 "특히 여름철 수해와 관련된 문제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삼천동 일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꼽힌다. 그는 10여년 동

- 주민 목소리 듣기 위해
- 직접 현장 찾아문제 해결
- 삼천동 일대 하수관거
- 정비사업이 대표 성과
-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 담다른 열정 보여줘
- 행정과의 협력도 강점

안 꾸준히 사업 추진에 매달린 결과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 약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시의원은 무엇보다 생활 밀착형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김 의원은 제도와 정책 못지않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

체육인 출신답게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왔다. 태권도 9단인 그는 남원 출신으로 남원에서 초중고를 나온 후 인천대학교를 거쳐 우석대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구장과 잔디 구장 조성, 암벽장 건립, 아이유악당 조성 등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앞장서왔다.

그는 "초선 때는 암벽장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축구장과 잔디 구장, 아이유악당 조성 등에 힘을 쏟았다"며 "시민들이 체육과 문화를 가가



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이번 선거 직후에도 사흘 동안 교차로에서 서서 출퇴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하루 일정으로 감사 인사를 마무리한 것과 달리, 그는 3일 동안 시민들 곁을 지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 표 한 표에 담긴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에서 당선의 영광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려

는 그의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시민을 섬기는 생활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었다.

그는 "모든 주민을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거리에서라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 데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역시 의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행정과의 협력 역시 그의 강점이다. 그는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 의원은 "직원들과 주민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야 행정도 움직일 수 있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면 결국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30여 년이 훌쩍 넘게 지역을 지켜온 원로 정치인으로서 그는 주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주민의 불편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현장을 발로 뛰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그의 모습은 생활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모든 것이 주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5선이라는 화려한 기록 뒤에는 거창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주민 곁을 지키는 정치"라는 단순하지만 강한 원칙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걸어온 그의 의정 여정은 지방자치의 지향해야 할 생활 정치의 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만호 기자

▶ '5선' 최명철 전주시의회 의원

사람이 우선... 시민이 불러주면 언제 어디든

"시민이 불러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갑니다." 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 서신동 주민들이 최명철 의원을 아يا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화려한 인연이나 거창한 정치 구호보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 평생을 바쳐온 정치인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시의원 5선, 도의원 1선을 포함해 31년 동안 시민 곁을 지키는 대표적인 생활 정치인이다.

수많은 정치인이 선거 때만 주민을 찾지만 최 의원은 평소에도 골목길을 누비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오랜 세월 주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의외로 간단한 답이 돌아왔다.

"겸손입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31년 의정활동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메모만 해두고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을 가장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명철에게 이야기하면 바로 연락이 온다"는 신뢰가

- 겸손은 주민들의 지지 원동력
- 기계식 주차장 문제 해결
- 최 의원 의정활동 대표 성과
-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
- 모델 전국 최초로 시도
- 지역 서점과 협약 통해
- 출생아 그림책 선물도 추진
- 의정활동 밖 봉사활동도 눈길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그의 겸손은 의정활동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특히 그는 1995년 초선 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의원 배지를 거의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의원이 됐을 당시 배지를 달고 관공서



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깎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얼마 뒤 배지를 달지 않고 같은 부서를 찾았을 때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람을 보고 인사한 것이 아니라 배지를 보고 인사했다"는 사실을.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재도 그는 위원장직에 앉지 않는다. 일부러 방식을 치위봉고 일반 의원직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권위를 내려놓은 그의 철학은 의정활동 성과

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주시 곳곳에 설치됐다가 흉물로 방치됐던 기계식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준공 이후 실제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결국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 확대,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영세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최 의원의 정치가 특별한 이유는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대형마트 할인 혜택을 제공

하는 방식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동시에 잡는데 기여했다.

또 서신동 전입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지역 서점과 협약을 맺어 출생아에게 10만 원 상당의 그림책을 선물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이와 한 명이 태어나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 의원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의정활동 밖에서 이어온 봉사 정신이다.

그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34년 동안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소년원 협의회장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호남지역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지금도 정기적으로 소년원을 찾아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다.

전주에서 1956년 태어나 완산초등학교와 전라중학교, 완산고등학교, 전주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누구보다 전주를 사랑하는 토박이다. 배지를 내려놓고 사람을 선택한 최명철 의원의 31년 생활 정치는 오늘날 전주의 골목길 곳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오만호 기자

▶ '5선' 김윤철 전주시의회 의원

"오직 시민만"... 현장에서 답 찾는 생활정치 표본

전주시의회가 선거구(노송동, 인취·2·3동)에서 당선된 김윤철 의원은 전주시의회 연속 5선 의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러나 그의 5선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불편을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며 걸어온 16년의 탐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1956년 부산 출신인 김윤철 의원은 부산중학교와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우석대학교 중국통상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시민 복지 증진과 환경 정책 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우석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 다양한 사회·공공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 완산갑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을 역임했다.

교육 및 지역사회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기린초등학교 지역교육협의회 회장, 풍남초등학교 제9대 운영위원장, 한문화연구회장, (사)전주·완주 통합추진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교육 발전과 상생 협력에

- 선미촌 정비, 의정 대표 성과
- 전라강영 복원·팔복예술공장
-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 해와
- 16년간 대표 발의 조례 100여건
-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

앞장섰다.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정당보다 시민을 믿고 걸어진 세월이었다"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고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정치적 사련을 겪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곳이 없었다"며 "결국 믿을 것은 시민뿐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뛰고 또 뛰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도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며 연이어 당선



되기를 보여줬다. 정당의 간판보다 주민들과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정치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김 의원은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며 "거리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이

야기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선미촌 정비사업이다.

지금은 문화와 예술,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한 선미촌은 과거 전주 도심의 대표적인 짐장촌이었다. 누구도 선풍 나서지 못했던 시절 김 의원은 시의원 참여연대로 용역을 추진하며

변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전라강영 복원사업 역시 그의 끈질긴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현재 전주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팔복예술공장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목데 아래 생생 복원 사업도 그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12년 동안 끈질기게 추진한 끝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소로 재탄생시켰다. 이중 호수 개발사업 역시 그의 열정이 담긴 현장이다.

시민들의 산책 명소로 자리잡은 이중호수 데크길과 남측 화장실, 진입도로 확장 사업 등은 모두 김 의원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특히 수질오염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화장실 사업은 관계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새로운 정화시설 방안을 제시해 4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성사시켰다.

그는 이중 호수 진입도로 확장 사업도 직접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했고, 결국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이어져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끌어냈다.

조례 제정 활동 역시 돋보인다. 그는 지난 16년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만 1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주시 사에 진흥 지원 조례를 비롯해 장애인 복지 향상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학교 급식식 중사자 건강 보호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그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의 대형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터뷰 내내 인상적이었던 것은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그의 자세였다.

그는 "후배 의원들이 찾아오면 내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알려줄 준비가 돼 있다"며 "지역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에겐 아낌없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